



이 달의 계란 전망

이 남 희
자조금사업팀 산란계담당

고병원성 AI로 인한 소비위축 당분간 이어질 듯

◆ 동향

금년 5월 한달은 양계인들에게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이었다. 고병원성AI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33차까지 발생하였고, 계란최대소비지인 서울에서 두 차례나 발생되면서 소비감소폭이 시일이 지날수록 커져 양계산업전체가 불황을 겪고있다. 계란은 육계에 비해 AI발생으로 인한 즉각적인 소비감소가 덜한 편이나 올해 언론에서 인체감염설과 가상시나리오를 남발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감소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여파가 상당기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난가는 지난 6일 하락된 이후 수도권 특란 124원을 형성하고 있으며 재고량 증가로 인한 D/C폭이 상당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4월 산란종계 분양수수는 32,600수로 집계되었으나 고병원성 AI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전량 살처분되어 실제 분양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실용계 분양수수는 3,469천수로 전년대비 34.4%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총 분양수수는 12,264천수로 전년대비 24.9%증가하였다. 올해 2/4분기 계란생산에 영향을 미칠 지난해 4/4분기 산란실용계 분양수수는 8,542천수로 전년대비 20.7%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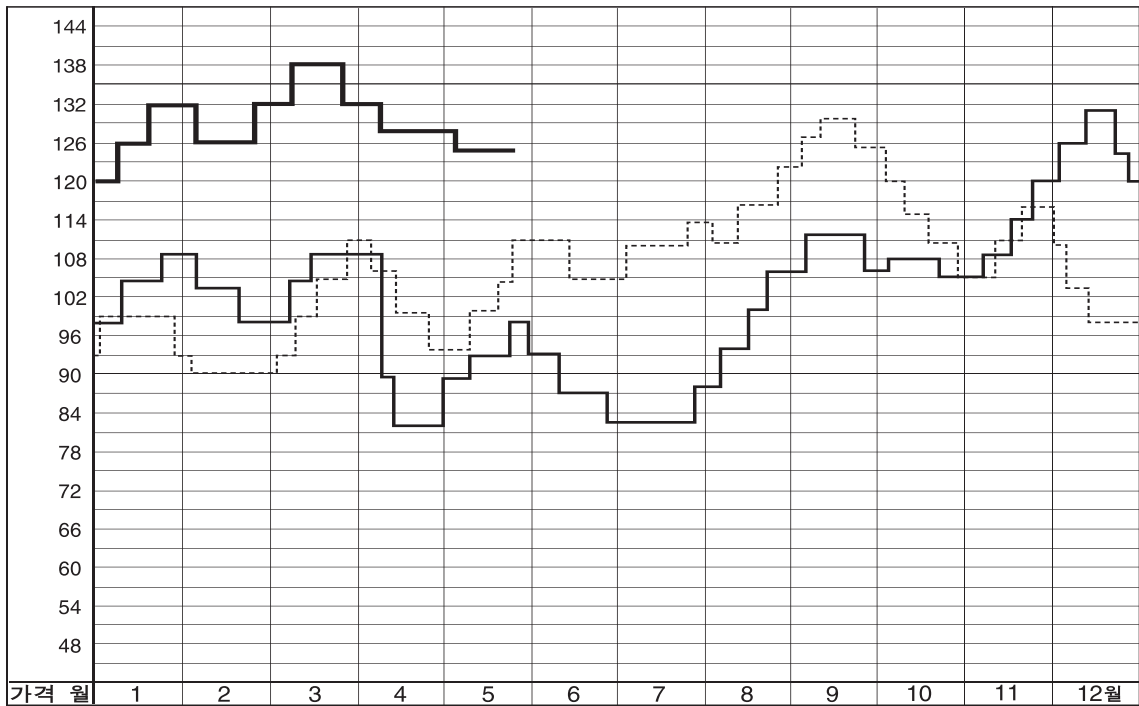
지난 4월 배합사료생산실적에 따르면 육추사료는 29,691톤, 산란사료 170,226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15.3%, 7.1%증가해 산란실용계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6월 산란실용계 생산에 영향을 미칠 산란종계사료는 4,503톤으로 전년대비 47.2% 증가해 분양수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 3월까지의 노계도태수는 5,172천수로 전년대비 8.2%감소하였다.

◆ 전망

언론에서 고병원성 AI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잉보도하면서 계란소비동향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종식되어도 여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란실용계 사육수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산란사료 생산량으로 판단하였을 때 계란 생산잠재력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계란보관문제 등 불안요소가 산재해 있다.

AI발생이 경남 양산까지 번지면서 산란실용계 살처분범위 확대로 추후 난가에 변수로 작용하겠다. 산란계 살처분 영향과 여름철 산란율 저하로 계란생산량은 예상치보다 밀들겠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생산량이 소비량을 앞설 것으로 예상되어 난가는 약세권에 머물 가능성이 크겠다.



※ 2007.4.7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20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06-- 2007- 2008-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특란 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05	10,000	2,588	25.0	159.6	1,200	1,370
	2006	39,150	2,050	20.4	168.4	1,050	973
	2007	39,300	2,592	24.6	176.5	1,142	1,035
	2008	55,000	2,857	28.3	176.2	1,050	1,262
2	2005	76,000	2,138	22.7	149.6	1,200	1,388
	2006	14,000	2,654	19.8	151.8	1,050	894
	2007	25,600	2,188	23.7	157.1	1,150	1,025
	2008	35,928	2,787	26.9	169.8	1,100	1,287
3	2005	0	2,013	24.7	167.5	1,200	1,430
	2006	0	2,752	23.2	171.9	1,050	1,020
	2007	68,000	2,461	24.2	168.0	1,150	1,054
	2008	43,100	3,151	24.8	162.3	1,100	1,349
4	2005	0	2,920	25.0	164.3	1,200	1,387
	2006	36,000	2,288	25.8	159.2	1,050	1,025
	2007	62,500	2,581	25.7	158.9	1,150	867
	2008	0	3,469	29.6	170.2	1,100	1,283
5	2005	48,000	3,190	26.2	162.7	1,200	1,292
	2006	48,500	2,637	29.1	165.2	1,050	1,031
	2007	15,000	2,454	28.4	172.8	1,094	936
	2008						
6	2005	60,200	2,351	27.5	153.9	1,200	1,183
	2006	52,000	2,523	28.0	162.7	1,056	1,062
	2007	0	2,194	25.6	150.1	1,050	891
	2008						

7	2005	96,000	2,662	28.2	143.6	1,132	1,097
	2006	33,000	2,390	25.1	154.8	1,139	1,100
	2007	30,500	2,486	26.3	148.3	1,022	824
	2008						
8	2005	0	2,622	29.2	156.5	1,044	1,110
	2006	34,820	2,693	24.7	156.6	1,150	1,148
	2007	49,300	2,493	24.0	153.9	1,000	973
	2008						
9	2005	32,400	1,860	27.7	163.0	1,050	1,242
	2006	31,700	2,508	25.7	170.5	1,188	1,265
	2007	96,400	2,494	24.2	157.2	1,000	1,110
	2008						
10	2005	39,900	1,958	27.8	156.8	1,050	1,066
	2006	59,500	2,415	27.8	163.5	1,200	1,134
	2007	23,200	3,039	27.3	164.2	1,028	1,069
	2008						
11	2005	0	1,929	26.2	162.8	1,050	921
	2006	50,000	2,311	26.1	160.7	1,200	1,097
	2007	29,760	2,709	28.0	163.1	1,050	1,126
	2008						
12	2005	58,000	1,981	24.5	178.0	1,050	936
	2006	30,000	2,351	26.3	165.2	1,194	1,012
	2007	10,200	2,236	28.9	175.1	1,050	1,254
	2008						
계	2005	420,500	28,148	314.8	1,920.3	1,131	1,202
	2006	428,670	29,572	302.1	1,950.8	1,115	1,003
	2007	449,760	29,838	311.6	1,945.7	1,074	1,014
	2008						

※2008년 1월부터 종계입식수에 브라운닉 포함.

※2008년 4월 산란총계는 32,600수 분양되었으나 SI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전량 살처분됨.